

중국 관련 보도의 어휘 사용과 반중 감정*

-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사드 배치 보도를 중심으로

정소영** · 김희교***

— 목 차 —

1. 서론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 2.1 선행 연구
 - 2.2 연구 방법
3. 분석 결과
 - 3.1 의미연결망 분석
 - 3.2 감정 분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사드 배치를 기준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중국 보도에 대한 어휘 빈도수, 의미연결망분석, 감정분석을 이용하여 두 언론사의 보도 태도를 분석하였다. 중앙일보의 경우, 2015년에는 미국과의 안보적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하는 보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6년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중국에 대한 보도의 중심은 급속히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반해 한겨레의 보도 태도는 미국에 대해 안보의 지나친 의존도 문제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고도화되는 것 모두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현재 매체는 중국을 보도하는 데 있어

*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제1저자)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교신저자)

서 그다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중들은 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늘어난 만큼 반중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키워드: 사드, 한중관계, 중국보도, 반중감정, 의미연결망 분석, 텍스트 마이닝, 감정분석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반중 감정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반중 감정을 고양 시키는 데는 동북공정 사태,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대응조치, 중국발로 알려졌던 코로나 19 발생, 그리고 미국의 중국봉쇄정책과 그에 대한 한국의 반응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은 각 언론사가 가진 프레임을 바탕으로 어젠다를 선정하여 수많은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동북공정, 사드사태, 코로나19, 그리고 트럼프정부의 중국봉쇄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본고가 사드에 주목한 이유는 사드가 반중 감정에 미친 영향을 다시 계량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공약을 함으로써 사드는 다시 한중간의 현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태도에 다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언론 매체들은 또다시 사드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다.¹⁾ 이 보도들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반중감정이 사드사태를 계기로 어떤 변곡점을 형성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²⁾

1) 조선일보의 경우 2022년 사드관련 뉴스는 총 210건이었는데, 정치 부문 159건, 경제 부문 0건, 사회 부문 6건, 문화 부문 4건, 지역 부문 4건, 스포츠 부문 10건, IT과학 부문 8건이었다.

2) 코로나 19가 반중 감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정소영·김희교(2022) 참조

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2.1 선행 연구

사드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과 자연어처리가 본격적으로 접목되지 않았던 2019년 이전은 대개 질적 연구에 치중되었다. 질적 연구는 주로 북핵에 대한 대비로서 사드 배치가 유용한가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중심으로 한미동맹문제, 한중관계에 대한 영향력문제, 동북아시아의 안정문제, 한류 및 중국인 관광의 지속화문제 등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드 사태를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에 대한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언론의 태도 분석 중 질적 연구는 한국 언론의 프레임을 중심으로 사드 사태 보도를 분석한 장영덕의 연구(2021), 한국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홍콩 언론까지 확대하여 프레임을 분석한 양승현의 연구(2016)가 대표적이다. 본고가 진행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는 연구 성과가 많지 않다.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 홍용락(2017)은 2017년 4월 한 달간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보도량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동아일보의 순이었는데, 매체의 프레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사드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31건으로 많았고, 한겨레는 대부분 부정적인 보도 패턴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비교적 중립적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의 질적 연구가 가져야 하는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와 양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조박·최낙진(2018) 역시 사드 배치를 중심으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사드’를 키워드로 기사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분석대상은 조선일보 649건, 한겨레 693건이었다. 분석 결과 조선일보는 주로 사드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동

하여 보도하였으며, 중국의 사드 반대는 부당하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하였다. 반면 한겨레는 사드가 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한다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SPSS를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사드 사태 시기에 이르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언론의 중국 담론 분석이 본격화되었다.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통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프레임을 비교분석한 권호천(2017)의 연구, 중국의 SN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중국 신문에 나타난 사드 보도를 분석한 주민욱(201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과 가장 유사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권호천의 연구는 양적인 사드분석 연구의 시초이자 모범적인 연구였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사의 제목과 부제에 한정시켜 분석하였으므로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제목과 부제에서 사드라는 어휘가 사용되지 않으면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분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기사의 보도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혹은 중립을 지키는지에 관한 분석 역시 할 수 없었다.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휘의 감정분석은 의미연결망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태도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최근 언론의 보도 태도를 분석하는 데 감정도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 미중 관계와 한중관계의 상관성을 감정지수(AvgTone)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이희정의 연구(2022)가 대표적이다. 감정지수분석법은 기사의 감정수준을 -10에서 +10으로 값을 매겨 분석한다. 본 연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감정분석 기법(sentiment analysis)은 언론이 사용한 기사의 모든 어휘의 감정도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여 표시해준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미연결망 분석뿐 아니라, 감정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에 관한 전체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대중에게 중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주도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모든 언론에는 부

서간 기자간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언론 매체의 주류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프레임과 어젠다를 분석하는 데는 질적 연구가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언론 보도 전체의 태도 분석에는 양적 연구가 효용성이 있다.

2.2 연구 방법

본고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Text Mining), 의미연결망 분석 기법(Semantic network analysis), 감정분석 기법(Sentiment Analysis)이다. 주요 대상 데이터는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일보와 한겨레이다. 이 외에도 2018년 조선일보를 포함한 다른 언론 보도도 참조했다. 본 연구는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전후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드의 실제 배치는 2017년 4월 26일에 이루어졌지만 보도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기점으로는 사드배치 발표가 더 변곡점이 되기 때문이다.

본고는 빅데이터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의 보수와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기사를 제공 받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선일보보다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좀 더 민감한 태도를 견지해왔던 중앙일보를 분석해봄으로써 사드 사태가 가진 다면성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 당시 사드와 관련된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매체 역시 중앙일보이기 때문이다³⁾.

기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뉴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사 뿐 아니라 사설, 칼럼 모두 포함시켰다. 결과, 중앙일보에서는 2015년 13187건, 2016년 9657건, 2017년 13259건이 추출되었고, 한겨레는 2015년 6185건, 2016년 4219건, 2017년 4311건이 추출되었다. 다시 상세검색에서 '사드'를 넣고 추출한 결과 중앙일보는 2015년 52건, 2016년 236건, 2017년 543건이 추출되었고, 한겨레의 경

3) 홍용락(2017) 참조

우 2015년 96건, 2016년 233건, 2017년 238건이 추출되었다.

본고는 이 기사들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비정형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여기에서 비정형 텍스트란 것은 데이터베이스 되지 않은 모든 전자 문서를 의미한다. 본고는 원본에 있는 모든 문장을 나열한 후, KoNLP에 있는 Simpleos9을 이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호, 외국어,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어미, 접사 중에서 체언만을 추출한 후, 빈도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의미 있는 상위 50개의 1음절 이상의 단어를 2차 정제해내었다⁴⁾.

상위 50개의 단어를 추출한 후에는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단어들 간의 관계에 적용한 것이다. 일정한 간격 안에서 어휘가 동시에 출현하면 서로 연결성이나 패턴이 작용한다고 보고 이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본고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얻은 주요 키워드 50개를 기준으로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도출해내었다. 동시출현 매트릭스란 A라는 어휘가 기타 어휘들과 얼마만큼 동시 출현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유용하다. 아래는 부분적인 예시이다.

	B	C	D	E	F	G	H	I	J	K	L
중국											
924	78	42	85	16	29	23	20	4	11	53	
78	241	22	24	8	11	2	15	0	6	12	
42	22	228	27	9	7	3	3	0	24	0	
85	24	27	410	10	19	2	7	2	12	33	
16	8	9	10	127	0	3	3	2	0	5	
29	11	7	19	0	205	2	6	4	6	26	
23	2	3	2	3	2	156	3	0	9	6	
20	15	3	7	3	6	3	131	0	1	7	
4	0	0	2	2	4	0	0	65	0	2	
11	6	24	12	0	6	9	1	0	155	1	
53	12	0	33	5	26	6	7	2	1	189	
5	0	7	2	0	4	4	0	0	12	1	
44	9	7	14	8	9	3	5	4	0	2	
0	0	2	3	1	0	0	0	0	0	2	
28	6	3	7	4	11	0	1	8	0	5	
23	4	0	8	0	2	2	0	0	0	6	

4) 1차 정제 시 체언을 추출했을 때, 중앙일보의 경우 2015년 46105개, 2016년 47218개, 2017년 54806개였고, 한겨레의 경우 2016년 31355개, 2016년 30191개, 2017년 30477개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UCINET을 이용하여 시각화 하고, 해당 클러스터를 묶음으로 정리해내었다. 본고는 분산배치 정도를 조정하여 4개의 묶음으로 나누었는데, 묶음 안의 단어들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간주되는 것들이다. 이 방법은 특정한 어휘가 주로 어떤 어휘들과 함께 보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⁵⁾

감정분석의 경우, 텍스트 마이닝과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형태소로 분해한 후, KNU 한국어 감정사전을 바탕으로 감정 점수(-2~+2)를 부여하였다.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각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어휘들의 부정, 긍정의 점수를 더하여 해당 문장의 점수를 나타내게 되고, 본고는 해당점수를 그래프 형식으로 시각화하였다. 감정분석은 감정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점수를 각 어휘에 기계적으로 부여하여, 그 기사에서 어떠한 감정적 어휘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기사 전반의 태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려가 되지만 우리 정부는 희망적으로 대응하리라 기대한다”와 “우려가 되는 바이다”의 보도 태도는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감정분석은 프레임 분석에 비해 대중들의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더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언론 매체의 전반적인 보도 태도를 보는 데 매우 유용하다. 언론 보도의 전반적인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중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문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분석 결과

빅데이터에서 중앙일보의 기사를 추출한 후, 중국이라는 검색어를 넣고 년도 별로 상위 검색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빈도수 대로 상위 20위까지만 표시했다.

5) 권오천(2016), 정소영·김희교(2022) 참조.

중앙일보 상위 20위 어휘 빈도표					
검색어:중국					
2015년(13187건)		2016년(9657건)		2017(13259건)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중국	10817	중국	8126	중국	10511
한국	3504	북한	2525	북한	5290
미국	2199	한국	2483	미국	4290
세계	1932	미국	2458	대통령	4086
일본	1635	세계	1258	한국	3587
서울	1444	대통령	1225	트럼프	3154
북한	1426	차	1221	정부	2027
사진	1392	일본	1190	일본	1829
배우	1284	서울	952	사드	1779
화제	1253	경제	841	차	1756
차	1181	사드	804	문재인	1578
엑소	898	트럼프	794	세계	1396
대통령	873	시장	674	도널드	1207
전국	848	기업	648	미사일	1063
경제	835	글로벌	605	한반도	955
정부	759	억원	539	서울	930
시장	755	대표	532	배치	867
모습	736	사진	506	기업	809
대표	721	배치	498	대북	787
사람	713	수출	475	사진평	724

2016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관련된 중앙일보의 어휘 빈도표를 보면 대략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사드를 배치하기 이전인 2015년도 중앙일보를 보면 시장주의적 경향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립적인 어휘를 배제하면 배우, 엑소, 시장, 대표 등과 같은 경제 관련 어휘들이 중국과 연관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 들어서면 급속하게 안보 중심의 어휘들이 상위권에 드러난다. 중국과 사드를 연계시키는 어휘수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중국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어휘도 배 이상 늘어났다. 트럼프의 정책과 중국을 연결시켜 보는 경향도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때도 중앙일보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관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장, 기업, 글로벌과 같은 경제적 어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가 실전에 배치된 시기인 2017년에는 급속하게 보도의 중심이 경제에서 안보 쪽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어휘는 2015년에 비해 배가 늘어난 것과 달리 경제와 관련된 어휘는 ‘기업’ 이외에는 거의 사라졌다.

한겨레는 상위 20개의 어휘빈도표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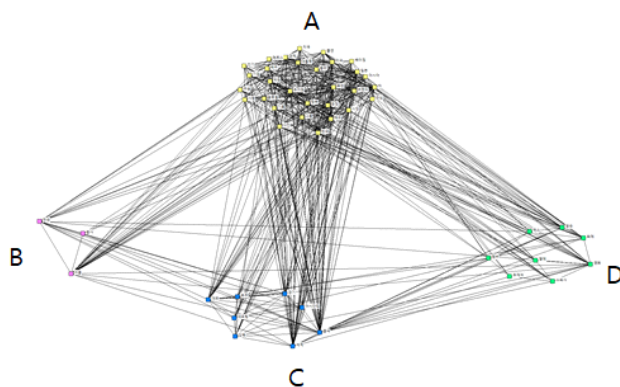
한겨레 상위 20위 어휘 빈도표					
검색어:중국					
2015(6185건)		2016(4219건)		2017(4311)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어휘	빈도수
중국	4670	중국	8126	중국	3056
미국	1844	미국	1318	미국	1707
일본	1381	북한	1075	대통령	1467
한국	1358	한국	1020	북한	1252
정부	953	정부	834	트럼프	1206
세계	728	대통령	739	한국	983
대통령	702	일본	659	정부	714
북한	667	사드	613	일본	646
서울	636	배치	490	사드	610
아베	561	차	486	문재인	563
경제	502	세계	472	도널드	514
총리	474	박근혜	384	세계	440
차	452	트럼프	344	차	429
사람	350	서울	342	한반도	424
시장	350	한반도	339	배치	413
수출	327	핵실험	296	서울	373
역사	326	제재	261	시진핑	366
한반도	317	경제	259	대북	306
박근혜	313	대북	254	미사일	303
아시아	298	사람	218	정상회담	302

한겨레의 어휘 빈도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5년 어휘 빈도수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략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제적 고도화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 시장, 수출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 역사, 사람과 같은 중앙일보 상위 어휘 빈도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대적 과제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나 안정적 체제 구축의 관점에서 사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북, 미사일, 정상회담 등이 순위표에 등장한 것을 볼 때 사드 배치가 북한의 강경한 대응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깊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겨레의 2017년 어휘 빈도표에 주목되는 점은 2015년에 나타났던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 고도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은 향후 대중들의 중국 인식이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안보적 시각으로만 해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경향이다.

3.1 의미연결망 분석

사드 배치 이전 중앙일보가 중국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2015년 중앙일보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해보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2015년 중앙일보의 의미연결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아래 표는 상위 50위 어휘를 추출하여 연결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노드(node)와 엣지(edge, 선)로 구성되는데, 노드는 꼭지점이라고도 한다. 각 어휘는 노드로 표현되고, 그 어휘와 같이 보도된 어휘들은 엣지로 연결된다. 엣지의 진함에 따라서 연관성이 드러나는데, 진할수록 연관성이 깊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5 상위 50위 어휘연결 분석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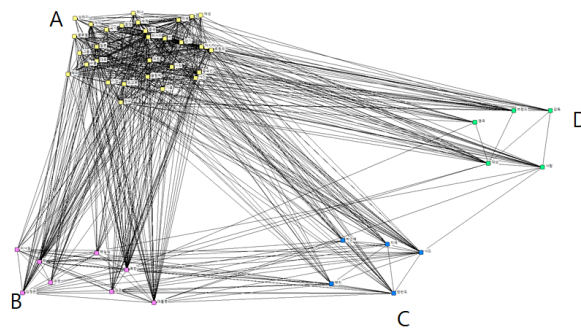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5년 상위 50위 어휘빈도표			
A	B	C	D
경제			
관심			
그룹			
글로벌			
기록			
대통령			
메르스			
미국			
배우			
베이징			
북한			
브랜드			
사진			
시장			
아시아			
역원			
일본			
정부			
지역			
차			
총리			
추자현			
	진국 행사 서울	감독 경기 대표 대표팀 세계 아시안컵 중국 호주	멤버 소속사 엑소 열애 영국 영화 유재석 화제

출연			
한국			
해외			
회장			
사람			
모습			
기업			
인기			

2015년 중앙일보 의미연결망을 보면 중앙일보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 어휘 빈도표에서 드러난 것보다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경제, 시장, 그룹, 글로벌, 브랜드, 회장, 기업과 같은 경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어휘연결망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노드가 밀집되어 있을뿐더러 엷지도 진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배우, 추자현, 인기, 멤버, 소속사, 엑소, 열애, 영화, 유재석과 같은 한류와 관련된 어휘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2016년이 되면 의미연결망은 상당한 수준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전히 글로벌, 기업, 수출, 시장과 같은 경제적 어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김정은, 미사일, 북한, 핵, 핵실험과 같은 어휘들이 중국과 연결되어 급격히 중심을 잡고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류와 관련된 연결망도 대폭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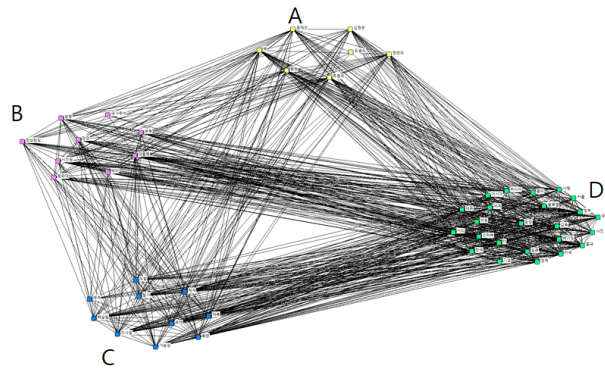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6 상위 50위 어휘연결망>



중앙일보 2016년 상위 50위 어휘빈도표			
A	B	C	D
경기			
경찰			
그룹			
글로벌			
기록			
기업			
IT가			
대표			
러시아			
미국			
사진			
상하이	김정은		
세계	대통령		
수출	미사일	박근혜	감독
시장	북한	배치	대상
아시아	유엔	사드	브랜드
역원	장관	지역	사람
여성	핵	한반도	영국
올림픽	핵실험		
외교부			
일본			
제재			
중국			
중국인			
차			
트럼프			
하나			
한국			
해외			
회장			

사드가 배치된 2017년 중앙일보 의미연결망에는 김정은, 북핵, 한반도, 핵, 발사, 체제, 핵실험과 같은 안보 관련 어휘들이 경제나 한류와 관련된 어휘들을 밀어내고 완전히 중심에 자리 잡았다. 중앙일보의 중국 보도의 중심이 경제와 한류에서 안보 문제로 급속히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2017 상위 50위 어휘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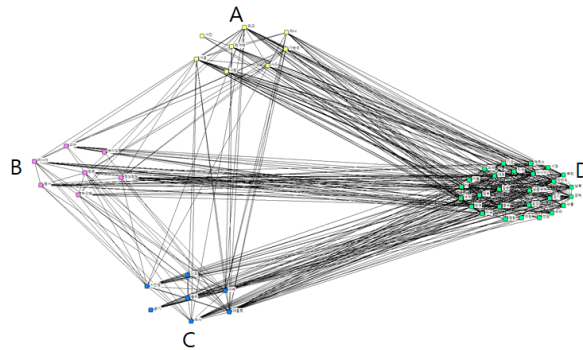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7년 상위 50위 어휘빈도표

A	B	C	D
김정은 도널드 문재인 북핵 트럼프 한반도 핵	국가주석 대통령 방문 배치 보복 시진핑 장관 정상회담 청와대	가능성 대북 도발 미사일 발사 북한 유엔 제재 체계 핵실험	감독 경제 글로벌 기업 대표 러시아 미국 베이징 사드 사람 사진 서울 세계 아시아 억원 외교부 인터뷰 일본 정부 중국 차 총리 한국 회장

2015년 한겨레의 중국관련 의미연결망은 아래와 같다. 2015년 한겨레의 중국 관련 의미망은 어휘 빈도수 분석에서 드러난 결과에 비해 중국 보도에 집중적이고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의미연결망의 중심에 자리 잡은 어휘들이 대체적으로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뚜렷한 중심을 형성하는 경향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다. 이 점은 2015년까지는 한겨레의 중국 보도가 특별한 프레임이 없이 보도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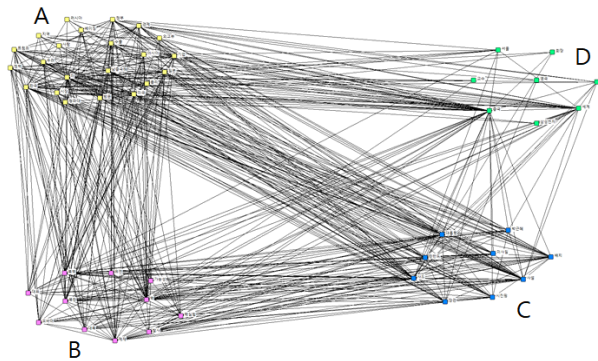
<한겨레 2015 상위 50위 어휘연결망>



한겨레 2015년 상위 50위 어휘빈도표			
A	B	C	D
가능성 사드 사람 사설 사진 외교 하나 한겨레	교수 러시아 박근혜 방문 베이징 정상회담 행사	대통령 분기 시진핑 신조 아베 역사 총리	경기 경제 기업 남북 남중국해 대표 메르스 미국 북한 서울 세계 수출 시장 아시아 억원 영향 외국 우려 일본 전망 중국 지역 차 한국 한반도 회장

그러나 한겨레 역시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보도의 양태가 급속히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한겨레의 의미연결망을 보면 안보와 관련된 어휘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대북, 북핵, 발사, 핵실험 등 북한의 핵실험 문제가 중국과 관련되어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드 배치가 가져 올 경제적 손실이나 파장에 대한 우려는 희박하게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도 별로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겨레 2016 상위 50위 어휘연결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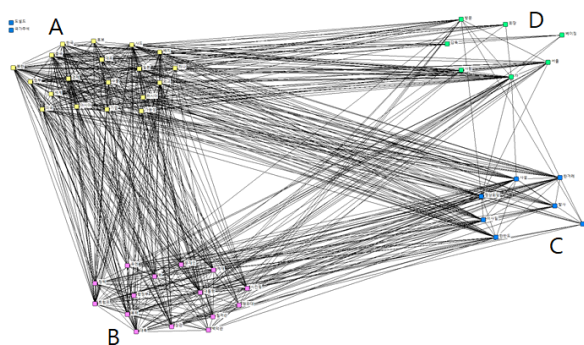


한겨레 2016년 상위 50위 어휘빈도표			
A	B	C	D
경제	가능성	대통령	교수
기업	대북	미사일	삼성전자
남중국해	대표	박근혜	서울
러시아	발사	배치	세계
미국	북한	사드	영국
방문	북핵	사실	전망
베이징	오바마	시진핑	중국
사람	유엔	장관	회장
수출	제재	한반도	
시장	핵		
아시아	핵실험		
외교부			

우려 일본 정부 정책 지역 차 청와대 총리 트럼프 한국			
---	--	--	--

하지만 안보적 시각이 완전히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었다. 아래 한겨레의 2017년 의미연결망을 보면 2016년과 달리 경제, 기업과 같은 어휘들이 중심에 등장한다. 이것은 한겨레가 중국의 사드에 대한 경제적 대응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안보 이슈에 비하면 중심의 이슈로부터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빈도수도 약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 2017 상위 50위 어휘연결 분석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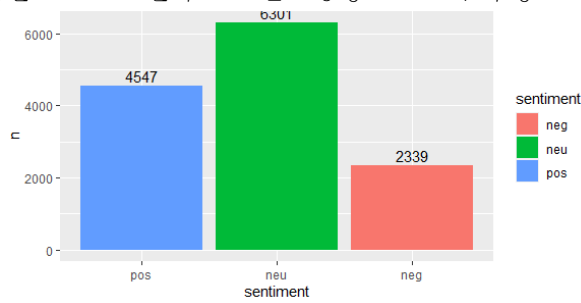
한겨레 2017년 상위 50위 어휘빈도표			
A	B	C	D
가능성 경제	대북 대통령	미사일 발사	감독 방문

기업 대표 러시아 미국 배치 북한 사드 세계 수출 아시아 외교 일본 정부 중국 하나 한국 한국 후보	문재인 백악관 북핵 시진핑 유엔 정책 제재 청와대 트럼프 틸러슨 핵 행정부	사실 정상회담 총리 한겨레 한반도	베이징 사람 서울 차 회장
--	--	--------------------------------	----------------------------

3.2 감정 분석

2015년 중앙일보에서 중국을 키워드로 넣은 어휘 감정도 분석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전체 13187건이 분석의 대상이었다. 분석 결과 긍정이 34.48%, 부정이 17.73%임을 볼 때,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 배 이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중립적 어휘는 51.7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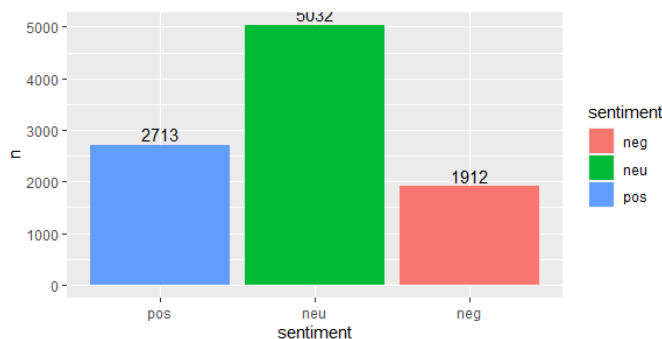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5> 전체13187건 : 긍정 34.48% / 부정 17.73%



2015년 중앙일보의 중국에 대한 감정분석 결과는 어휘빈도수와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중앙일보 주류의 프레임과 보도 전체의 태도 또한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2015년까지 중앙일보의 보도 경향은 시장주의적 관점의 보도가 많았고, 경제가 보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시장주의로 바라보는 태도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2016년 감정 분석 그래프를 보면 2015년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긍정이 28.09%이고 부정이 19.7%이다. 여전히 긍정적인 어휘 사용이 높기는 하지만 급속히 줄어들어 부정적인 어휘 사용과의 간격이 약 8.39% 차이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중앙일보의 주류 프레임이 경제에서 안보로 이동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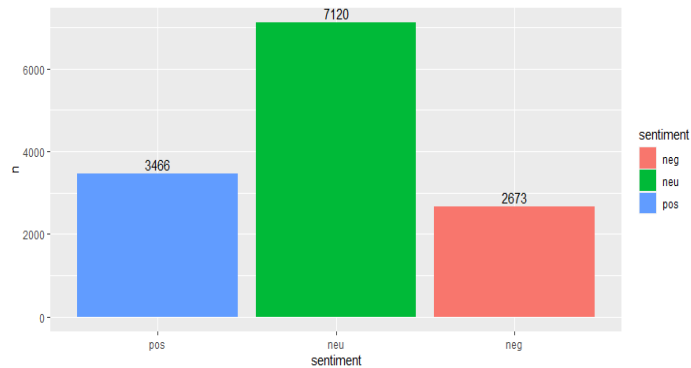
<중앙일보 2016> 전체 9657건 : 긍정 28.09% / 부정 19.7%



2017년이 되면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는 긍정이 26.1%이고, 부정이 20.15%가 된다. 긍정이 부정보다 5.95% 높지만 2016년에 비해 2.44% 더 떨어진 수치이다. 중국에 대한 안보 중심의 보도 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는 앞서고 있다. 이것은 의미연결망에서 나타나는 대로 안보적 이슈가 보도의 중심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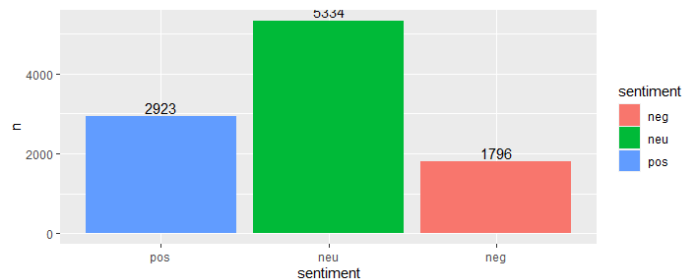
경제에 대한 기대와 고도화되어 있는 한중 경제관계의 지속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역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중앙일보 2017> 전체 13259건: 긍정 26.1% / 부정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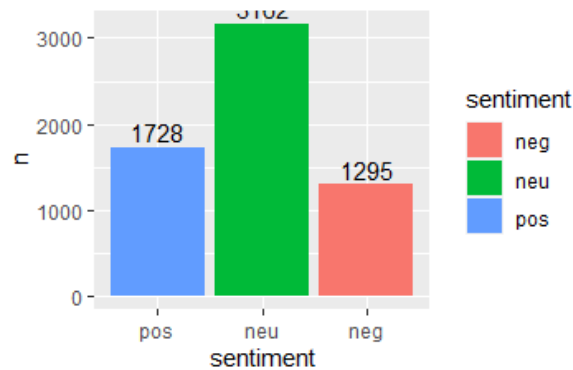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사드가 배치되고 중국의 대응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앙일보의 전반적인 보도 태도는 한국 보수 언론이 지닌 중국에 대한 양가적 태도 - 안보적으로는 비판적, 경제적으로는 우호적- 는 큰 변동이 없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점은 중앙일보에 비해 중국을 안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선일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사드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인 2018년 조선일보를 보면 긍정이 부정보다 여전히 높다. 이 점은 사드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의 보수언론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태도를 양가적으로 가져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선일보 2018> 전체 10,053건: 긍정 29.07% / 부정 1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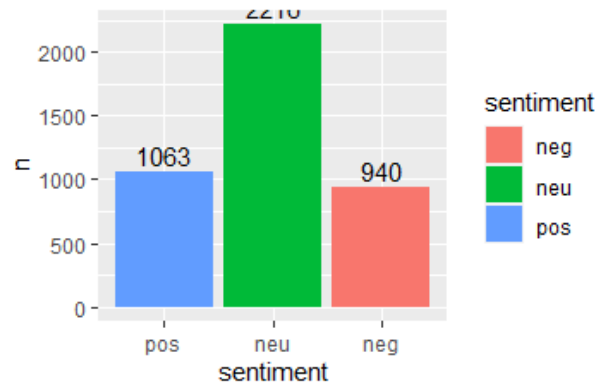
한겨레의 경우, 2015년의 분석 결과는 긍정이 27.93%이고, 부정이 20.93%였다. 긍정이 부정보다 7%가 더 높았고, 중립은 51.14%였다. 중립적 어휘의 비율은 중앙일보와 거의 비슷하다. 주목되는 점은 중앙일보의 경우 긍정이 부정보다 배 이상 높았지만, 한겨레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겨레가 중국과 지속적으로 발전해오던 경제적 관계의 고도화에 대하여 경계심을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다. 2015년 한겨레의 의미연결망을 보면 경제나 한류와 관계된 어휘들이 중앙일보와 달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한겨레가 그동안 우려해오던 한중 FTA에 따른 한국 농촌의 피해 가능성, 한국 경제의 시장주의적 성향에 대한 경계심, 중국의 시장주의가 가져올 한국 경제와 주권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보수언론의 태도가 안미경중이었다면 한겨레의 태도는 미국에 대한 안보의 지나친 의존도 문제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고도화되는 것 모두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한겨레 2015> 전체6185건 : 긍정 27.93% / 부정 2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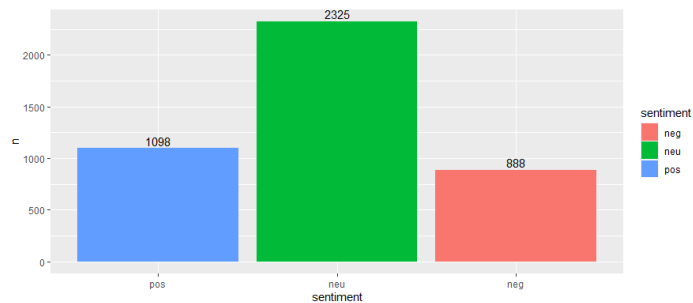


2016년 한겨레가 사용한 어휘의 감정도에는 2015년에 비해 나빠졌다. 긍정이 25.19%이고 부정이 22.28%이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2.91%로 좁혀졌다. 그러나 중앙일보에 비해 변동 폭은 적었다. 중앙일보가 사드 배치 발표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긍정적 감정도가 16.75%가 추락했음에 비해 한겨레의 변동 폭은 2.74%에 불과했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겨레가 급속도로 안보 쪽으로 보도 태도를 바꾼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2017년도 역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긍정이 25.46%이고 부정이 20.58%였다. 중립적 어휘가 줄고 긍정으로 약 1.97%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

<한겨레 2016> 전체 4219건 : 긍정 25.19%, 부정 22.28% (중립 2216건)



<2017> 전체 4311건 : 긍정 25.46 %, 부정 20.58%



6. 결론

사드 사태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간에 프레임의 대립장이었음과 동시에 그동안 견지해오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국가

간 체제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험장이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의 보수언론은 미국과 안보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에 대해 줄곧 실용주의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적 대응,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⁶⁾을 계기로 한국 언론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드 배치가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2015년 어휘 빈도수, 의미연결망분석, 감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까지 중앙일보의 보도 태도는 미국과의 안보적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과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도 동시에 강조하는 보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시장주의적 프레임이 우세했고, 중국의 경제적 관계의 고도화와 한류 확산과 관련된 어휘들이 중심성을 보이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었다. 어휘들의 감정적 태도 또한 긍정이 부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 발표를 기점으로 중앙일보의 중국에 대한 보도는 급속히 안보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어휘 빈도수에서 안보 중심의 어휘가 급속히 등장하기 시작했고, 안보 중심의 어휘가 경제 중심의 어휘보다 의미연결망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중앙일보의 전체 보도 태도 또한 부정적 태도가 급속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그것이 안미경중의 큰 틀을 깨는 방향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17년 중앙일보 보도 태도를 보면 중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 태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점은 사드 설치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가 경제적 이익을 안보적 목표에 종속시키는 적대적 진영 태도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볼 때 중앙일보의 중국 보도는 사드 사태를 계기로 안미경중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안보 중심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어휘 빈도수, 의미연결망분석, 감정분석의 결과 한겨레는 중앙일보에 비해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6) ①사드추가배치하지 않는다. ②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 시기는 한겨레에 비해 중앙일보가 훨씬 더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겨레의 긍정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고도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중앙일보와 달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한겨레의 의미연결망을 보면 경제나 한류와 관계된 어휘들이 중앙일보와 달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한겨레가 중국을 어떤 특정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특히 시장주의적 프레임으로 중국을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에 대한 안보의 지나친 의존도 문제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고도화되는 것 모두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한겨레의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2016년, 2017년에도 전반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문제는 한겨레의 양비론적 보도 태도는 언론의 기계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는 올바른 선택일 수 있지만 한국 사회 대중들의 반중 감정의 고양을 막아내는 데는 무력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드 사태는 전후체제 속에서 한국이 유지해오던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인 안미경중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변곡점이었다. 보수언론의 태도는 안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태도를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들이 내보내는 안보 중심의 중국 전유적 경향에 대항 담론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대중들의 반중 감정이 자연스럽게 고양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대중들은 보수언론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늘어난 만큼 반중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게 된다. 보수언론의 보도량이 진보언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프레임 역시 명확하기 때문이다. 보도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중들은 자연스럽게 양이 많고 프레임이 명확한 매체에 설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參考文獻

- 강진석, 「사드사태'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는 시기 생성된 동아시아 한류의 변화와 그 문화공간적 함의」, 『중국학연구』 제 94집, 2020.
- 김희교, 「사드와 한국 보수주의의 중국인식」, 『역사비평』 제121집, 2017.
- , 「전후체제의 위기와 홍콩사태」, 『한중관계연구』 제7권 3호, 2022.
- , 『짱개주의의 탄생』, 보리출판사, 2022.
- 권호천, 「사드(THAAD) 관련 신문기사의 의미네트워크 분석- <조선일보> 와 <한겨레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정보 연구』 제54권 2호, 2017.
- 양승현, 「한국 사드 배치와 동아시아 여론 동향 분석-한,중 및 대만 홍콩 신문 뉴스 프레임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제42권, 2016.
- 于婉莹, 「사드 갈등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 『JPI 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9.
- 주민욱, 「중국 신문 보도에 나타난 한중관계 위협 요인 분석: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호, 2020.
- 장영덕, 「한·중관계 쟁점 보도의 이념 편차와 국내정치적 요인: 동북공정과 사드 문제의 비교 분석」, 『연구방법논총』 제6권 3호, 2021.
- 정소영·김희교, 「의미연결망분석과 감정분석을 통해 본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와 반중 감정」, 『중국어문논총』 제110집, 2022.
- 정원준, 「사드(THAAD) 이슈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공중간 갈등 인식 변화 추이 연구」, 『한국광고홍보학회』 제22권 2호, 2020.
- 조박, 「韓國의 대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제주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조박·최낙진, 「한국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프레임 비교 분석 : 사드(THAAD)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 과학 연구』 제37권 2호, 2018.
- 최태훈, 「사드관련 環球時報 사실 비판적 담화분석」, 『중국언어연구』 제74집, 2018.
- 홍용락,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언론 보도의 특성-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11권, 한국 방송 학회, 2017.

Abstract

Vocabulary and anti-Chinese sentiments used in Korean media reports about
China
- Focusing on reports on THAAD

Jhong, So Young · Kim, Hee Gyeo

The Korean media mass-produced numerous articles by selecting an agenda based on the frame of each press. The same was true for the Northeast Project of China, the THAAD incident, Corona 19, and the Trump administration's containment policy on China, which had a major impact on South Korea's anti-China senti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ttitudes of the two media companies by analyzing the vocabulary frequency, vocabulary network, and vocabulary sentiment on the THAAD reports of the JoongAng Ilbo and the Hankyoreh in 2015, 2016, and 2017.

As a result of analyzing vocabulary frequency, vocabulary network, and vocabulary sentiment in 2015, the JoongAng Ilbo's reporting attitude until 2015 maintained that emphasized the need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le maintaining a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 words related to the advancement of China's economic relations and the spread of the Korean Wave showed centrality and were mentioned the most. The emotional attitudes of the words were also overwhelmingly higher in positive than negative. However, starting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THAAD installation in 2016, the center of the JoongAng Ilbo's reports on China was rapidly reorganized into a security focus. Security-oriented vocabulary began to appear rapidly in vocabulary frequency, and security-oriented vocabulary was positioned at the center of the vocabulary network rather than economic-oriented vocabulary. The JoongAng Ilbo's Chinese report did not fundamentally, but it could be confirmed that it was moving toward a more security-oriented attitude.

As a result of analyzing vocabulary frequency, vocabulary network, and

vocabulary sentiment in 2015, the Hankyoreh newspaper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China compared to the JoongAng Ilbo. Compared to the Hankyoreh, the JoongAng Ilbo viewed China more positively. Unlike the JoongAng Ilbo, which positively views the advancement of economic relations with the rising China, it is judged that the vigilance toward the rising China has been activated. If you look at the Semantic Network of the Hankyoreh in 2015, vocabulary related to the economy or Hallyu is not located at the center. This reveals that the Hankyoreh did not view China in a specific frame. The Hankyoreh's reporting is a critical attitude of excessive dependence on the US for security, and also alerted the heighten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The Hankyoreh's reporting attitude is generally maintained in 2016 and 2017 as wel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Hankyoreh's bipartisan reporting attitude may be the right choice to maintain the media's mechanical neutrality, but it can be seen as an ineffective measure in preventing the rise of anti-Chinese sentiment among the public in Korean society. The point is that the Korean public was in a structure where they had no choice as the number of negative reports about China by conservative media increased, but to be inclined toward anti-China sentiment.

Key words : China news, anti-Chinese sentiment, Text min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Sentiment analysis

투 고 일 : 2022. 7. 10. / 심 사 일 : 2022. 7. 15. ~ 2022. 8. 15. / 게재확정일 : 2022. 8. 20.